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60곳으로 확대 지정

지역의 다양한 변화 담아내 도심 활력 제고

자치구별 현안사업 능동적 대처 가능할 듯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이 기존 17곳에서 60곳으로 확대된다. 광주시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선제 대응하고 광주시의 다양한 여건 변화를 담아낼 수 있도록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확정해 8월 1일 광주시보에 공고한다고 30일 밝혔다. 당초 시는 2025 광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서 2016년 4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17곳을 지정해 선도사업, 새마을사업 등을 추진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사업, 4차산업과 연계한 일자리창출, 자치구별 현안 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을 확대 지정했다. 변경된 계획에는 자치구별 쇠퇴된 단 및 여건 분석,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협의체 등 실행주체 구성 방안, 재원조달 계획, 기초생활 인프라를 위한 계획 등이 담겨 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유형으로 경제기반형에 송암·본촌·소촌 산업단지

기존 광주충정역, 임동 일신방직 주변, 광주역 주변 등 6곳을 지정하고 근린재생형에 가까운 옛 국군통합병원 지역은 해제했다. 역사·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중심지가 지정 7곳과 주민공동체 활성화 및 골목상권 활력 증진을 위한 일반근린형 21곳도 지정했다. 노후주거지를 정비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주거지 지원형 18곳, 기초생활 인프라를 공급해 마을공동체를 회복하는 우리동네살리기 8곳도 추진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과 구도심 활성화, 상권 회복을 위해 대인·산수·무등·말바우·송정시장 등 전통시장 11곳도 활성화 지역에 포함했다.

재개발·재건축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실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중장구역과 동명1구역도 새롭게 포함해 뉴딜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확정 공고해 일반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확정 공고되면 활성화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용자 신청이 가능하며, 자치구는 활성화계획을 마련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소규모 재생사업 공모 등 다양한 도시재생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범수 광주시 도시재생국장은 "도



광주역 전경

도시재생 전략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주민참여와 실현 가능성 있는 차별화된 도시 콘텐츠, 역사적·문화적 자원 등

이 반영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무더위 잊게 만드는 시원한 물 폭포 광주와 전남 대부분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30일 광주 광산구 '광주시민의 숲 물놀이장'에서 어린이와 시민들이 물놀이를 하며 무더위를 날리고 있다.

'나주 34.2도' 광주·전남 이틀째 무더위·열대야

광주와 전남지역에 기온이 30도를 넘는 무더위와 열대야 현상이 이틀째 나타나고 있다. 30일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29일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려진 폭염특보가 이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오후 3시 기준 광주와 전남 나주·광

양지역은 폭염경보 무안·장흥·화순·영광·함평·영암·해남·강진·순천·여수·보성·장성·구례·곡성·담양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기온은 나주 34.2도를 최고로 광양읍 33.7도, 광주서구 풍암 33.7도, 광주과기원 33.6도, 곡성 옥과 33.5도

를 기록 중이다. 또 오후 6시부터 다음달 오전 9시까지 기온이 25도 이상일 경우 나타나는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다. 31일 오후 전남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5~3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광주 클럽 '복층 붕괴물', 용접 무자격자가 시공했다

클럽 공동대표 운영 등 유혹주점서도 불법개축 확인



7월 27일 오전 2시39분께 광주 서구 차평동 클럽 내부 인테리어 구조물 붕괴 2명 사망 10여명 부상

- 연면적 1층 296.53㎡, 복층 108㎡(실제 188~80㎡불법 증축 의혹)
- 2층 구조물이 벽쪽으로 기울면서 1층 중앙쪽 'C'자형 바를 덮침

2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 당시 무너진 복층 상판은 용접 무자격 시공업자에 의해 불법증축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클럽 업주들이 인근에서 운영하는 다른 유혹주점에서도 불법증축 정황이 확인됐다.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는 A클럽 내 무너진 복층 상판은 지난 2017년 12월 불법 증·개축 과정에서 전문 자격 없는 용접공 B(37)씨에 의해 시공됐다고 30일 밝혔다. B씨는 업주와 친분이 있는 지인으로 5~3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

천장에 고정된 사각형 철제구조물 4개와 철골·목재 상판(복층 바닥)의 각 모서리에 연결된 용접 부위가 떨어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수사본부는 추정하고 있다. 또 상판을 바닥에서 지지하는 기둥 구조물이 전혀 없어 붕괴 위험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때문에 용접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 시공이 붕괴의 직접 원인으로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수사본부는 A클럽이 무단 증·개축을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A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을 신고한 2015년 7월 전후로 복층 좌우

통로·계단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당초 행정당국에 의해 허가받은 복층 면적 108㎡는 좌·우측이 아니라 중앙에 위치한 디스크 자키(DJ) 박스 뒷편이었다. 수사본부는 이 중 좌·우 복층 구조물과 연결되는 구간을 제외한 가운데 46㎡가량은 1차례 철거된 것으로 보고 구체적 시점은 조사 중이다. 이후 2017년 12월 A클럽은 통로·객석 확보 차원에서 이미 무단 증축한 좌·우 복층 구조물에 철골·목재 상판을 확장하는 공사를 진행했다. 시공은 업주의 지인 B씨 1명만이 도맡았다. B씨는 전문 용접기술을 배우거나 자격증을 취득한 적이 없다고 수사본부는 설명했다. 또 A클럽 복층 공간을 대거 철거, 개축할 때는 B씨가 아닌 다른 전문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는 B씨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진술과 도면을 대조해 구체적 증·개축 경위를 면밀히 살필 방침이다. 또 클럽 공동대표 3명의 투자·소유 관계 등을 살펴본 뒤 중, 이틀이 또 다른 유혹주점을 운영하고 있는 점을 확인했다. A클럽에서 130여m 떨어져 있는 해당 유혹주점은 단층 구조로, 일부 공간을 무단 개축한 정황이 드러났다. 신봉우 기자



살수대첩 거리 퍼레이드



지상 최대의 물싸움



장흥 워터樂 폴파티

맑은물 푸른숲 정남진 장흥

제12회 정남진 장흥 물축제

2019. 7. 26(금) ~ 8. 1(목) 7일간
담진강 및 편백수 우드랜드 일원

- 주요행사 일정 -

- 개막식 : 7월 26일 (금) 오후 8시 (축하공연_ 비와이, 노라조, 제시, 박애리 등)
- 살수(薩水)대첩 거리 퍼레이드 : 7월 27일 (토) 오후 1시
- 지상 최대의 물싸움 : 7월 26일 (금) ~ 8월 1일 (목) 오후 2시
- 황금물고기를 잡아라 : 7월 27일 (토) ~ 8월 1일 (목) 오후 3시
- 장흥 워터樂 폴파티
 - 7월 26일 / DJ에나, 허조교
 - 7월 27일 / 불턴트밴드, 존자, DJ차니
 - 7월 28일 / 박수홍, 손헌수, DJ주주, 미스터팡, DJ레드핑크
- 공개방송
 - 목포 MBC : 7월 29일 (월) 송가인, 진시몬, 광민주, 이혜리, 현진우, 소명, 정정아, 광민, 묵비, 김경아, 이청아, 김대나, 임영웅
 - C J 헬로 : 7월 31일 (수) 박규운, 레이디 T, 박서진, 소현아, 태연아, 한민지, 이서진, 임경진, 신아라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4년 연속 우수축제